

기사입력: 06.06.11 18:51

인쇄하기

[코트라 LA, '한미 FTA 헬프 데스크' 첫 개설] "FTA 열매 많이 따자...기업들 준비 서둘러야"



한미FTA 헬프데스크 자문위원 위촉식이 6일 코트라LA사무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코트라LA 윤원석 센터장·케일린 김·김진정·최운화·민병철 자문위원·곽동원 코트라정보컨설팅본부장·사이먼 홍·최기호·앤드류 리·우종욱 자문위원. 신현식 기자

코트라LA(센터장 윤원석)가 개설한 '한미FTA 헬프데스크'가 컨설팅 외에 프로젝트 개발과 상품기획 등의 자문 역할까지 할 전망이다. 코트라가 해외지사에도 FTA헬프데스크 설립한 것은 미국이 처음으로 LA와 뉴욕에서 각각 운영된다.

6일 열린 헬프데스크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코트라는 "기본적인 상담 외에 심층적인 컨설팅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LA는 이날 헬프데스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8명의 기능별, 산업별 자문단의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코트라 곽동원 정보컨설팅본부장은 "한미 양국에서 비준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늦어도 11월 초에는 FTA가 정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은 정부의 몫이지만 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몫으로 FTA의 과실을 먼저 그리고 많이 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곽 본부장은 "이 헬프데스크 또한 FTA를 대비해 선제 지원을 하기 위해 개설된 것"이라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원석 센터장은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대응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기업들에게 포괄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헬프데스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운영방식은 ▶코트라 전담반의 1차 상담 ▶자문위원들의 2차 컨설팅 ▶더 심층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들부터의 유료 자문 등으로 이뤄진다.

윤 센터장은 "기본적인 문의는 코트라 전담반이 처리하게 되지만 자문을 넘어 프로젝트 개발에서 상품화 단계 등의 심층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헬프데스크 이용시 비용절감 이외에도 자문 위원들 간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해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문의가 많은 관세 분야는 상시로 전담 자문위원이 적극 응하게 되며 분야가 다양하고 까다로운 섬유산업은 별도의 전담위원을 두고 대처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단으로는 김진정 미주한인물류협회 고문 변호사(관세·통관) 민병철 남가주한인무역협회 회장(무역) 우종욱 남가주재 미과학자협회 회장(과학기술) 최운화 관텀어드바이저 대표(금융) 최기호 CKP 회계법인 대표(회계) 전 LA항만청 커미셔너 케일린 김 변호사(그린산업) 'Lee&Hong 법무법인' 사이먼 홍 대표 실리콘밸리 KBC 이종훈 IT자문위원(IT산업) 등이 위촉장을 받았다.

헬프데스크 이용은 수신자 부담전화(1-855-382-3375)나 코트라 LA 웹사이트(www.kotrala.com)를 통해서 문의할 수 있다.

오수연 기자

---

<http://www.koreadaily.com>

POWERED BY **JOINS**AMERICA